

# KRIVET Issue Brief

2014

48호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4년 3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 전체 직장인의 69.2%가 직장 성공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안정된 직장은 66.4%, 경제적 안정은 61.9%, 승진은 53.5% 순임.
- 성별로는 여자는 경제적 안정(남자: 56.5%, 여자: 72.2%)을, 남자는 승진(남자: 56.6%, 여자: 47.5%)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학력별로는 일·가정 양립은 고졸 이하 66.9%, 대학원졸이 73.7%이며, 승진은 고졸 이하가 53.6%, 대학원졸은 57.9%로 학력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과 승진을 직장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
- 적은 스트레스는 성별로는 여자(64.2%), 연령별로는 20대(58.3%), 직종별로는 사무·서비스직(61.1%)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기여에서는 50대 이상이 59.0%로 다른 연령층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01 분석의 필요성

#### | 직장인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은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장인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고학력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으로 인해 직장인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 전반의 소득 수준도 향상되어 승진·보상 중심의 전통적인 인사관리전략에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직장인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기업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장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주제임.
  - 직장인들의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에 관해 30개국이 참여하는 5C project(The Collaboration for the Study of Cross-Cultural Contemporary Careers)가 진행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일·가정 양립, 안정된 직장, 경제적 안정, 승진, 적은 스트레스,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고자 함.

### 02 분석자료

#### | 분석 자료: 한국 직장인의 경력성공 인식조사(2013)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 직장인의 경력성공 인식조사(2013)
-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의 직장인이고, 직종, 연령, 성별,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하여 총 1,054명을 조사함.
- 분석 문항: ① 일·가정 양립(일과 가정생활이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것), ② 안정된 직장(안정된 직장



KRIVET 모바일

을 갖는 것), ③ 경제적 안정(더 많은 돈을 꾸준히 버는 것), ④ 승진(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는 것), ⑤ 적은 스트레스(스트레스나 걱정을 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것), ⑥ 사회적 기여(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

| 각주 |

1)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4점: 보통, 7점: 매우 중요하다

- 분석 방법: 각 문항별로 직장인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활용함.  
- 각 문항은 7점 척도<sup>1)</sup>로 측정되었으며, 6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함.

〈표 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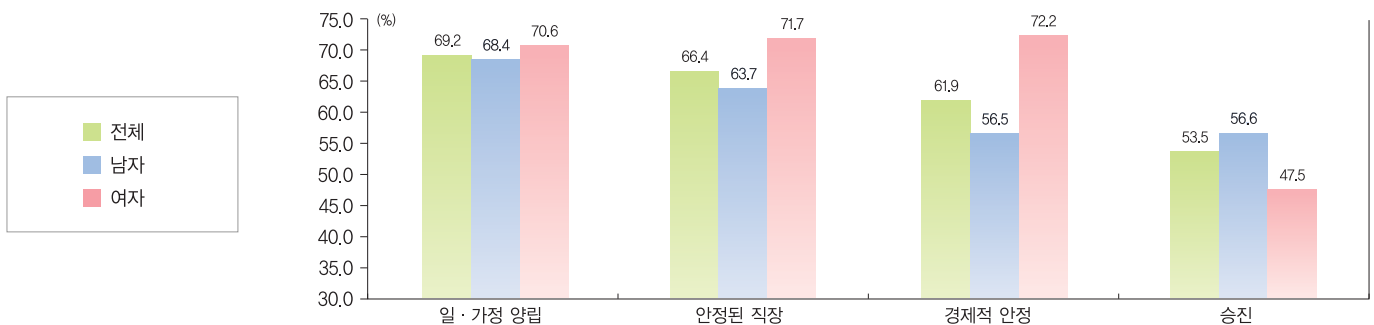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표본 수	구분		표본 수
성별	남자	694 (65.8)	연령	20대 이하	139 (13.2)
	여자	360 (34.2)		30대	309 (29.3)
				40대	396 (37.6)
				50대 이상	210 (19.9)
학력	고졸 이하	151 (14.4)	직종	관리직	198 (18.8)
	전문대졸	184 (1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직	250 (23.7)
	4년제 대졸	586 (55.6)		사무·서비스 및 판매종사직	378 (35.9)
	대학원졸(석,박사)	133 (12.6)		생산직	228 (21.6)
전 체					1,054 (100)

### 03 인구학적 특성별 직장인 성공에 대한 인식

#### | 남자는 승진, 여자는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인식

- 전체 응답자 중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은 69.2%로 가장 많으며, 안정된 직장은 66.4%, 경제적 안정은 61.9%, 승진은 53.5% 순임.  
-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직장인의 의식에 맞추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경제적 안정(남자: 56.5%, 여자: 72.2%)을, 남자는 승진(남자: 56.6%, 여자: 47.5%)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함.  
- 여성의 급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남성보다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과 직장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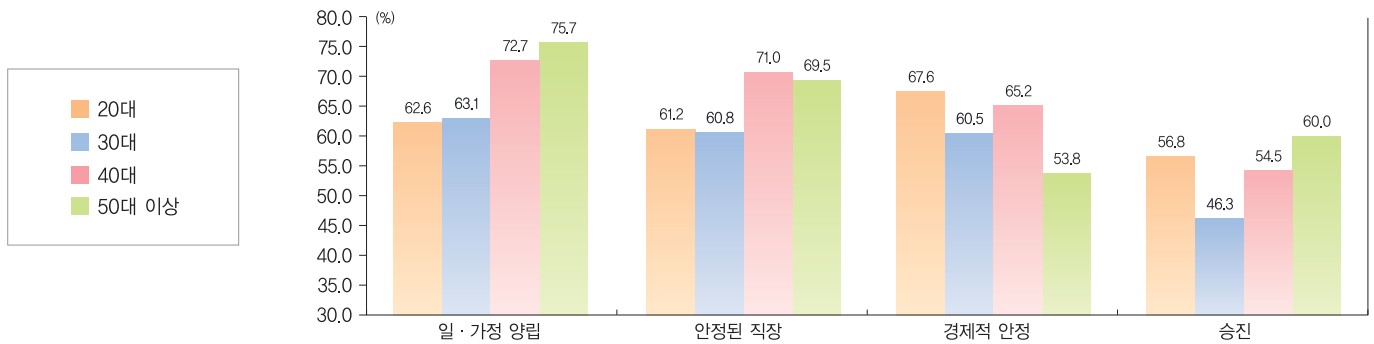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 | 20대는 경제적 안정, 40대 이상은 일·가정 양립을 중시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경제적 안정(67.6%)이, 40대 이상은 일·가정 양립(40대: 72.7%, 50대 이상: 75.7%)과 안정된 직장(40대: 71.0%, 50대 이상: 69.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일·가정 양립은 20대 62.6%, 30대 63.1%, 40대 72.7%, 50대 이상이 75.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여김.
- 안정된 직장은 20대와 30대 각각 61.2%, 60.8%이나 40대는 71.0%, 50대 이상은 69.5%로 중장년층이 안정된 직장을 중요하게 인식함.  
-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 시기가 앞당겨지고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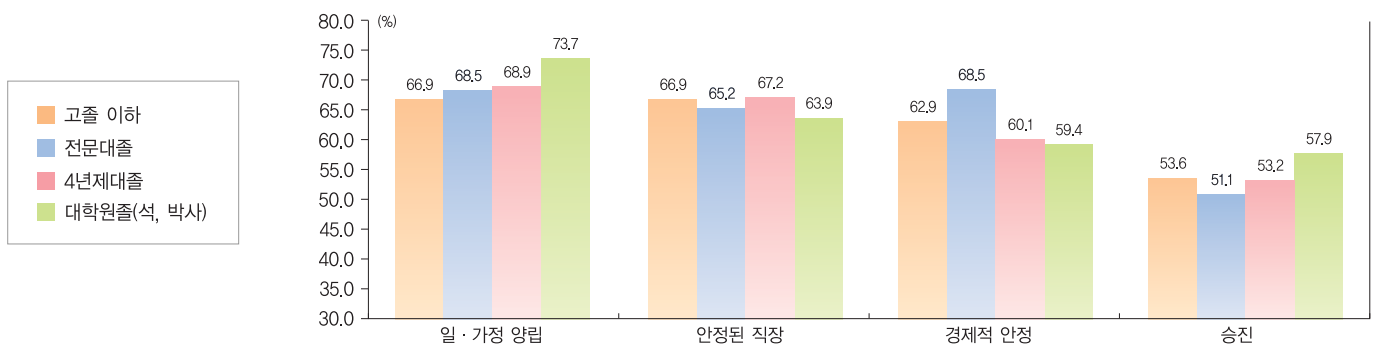
- 승진은 20대가 56.8%, 30대 46.3%, 40대 54.5%, 50대 이상 60.0%로 중장년층에게 중요하게 인식됨.  
- 40대 이상 직장인에게 승진은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연장되고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연령별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 | 학력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과 승진을 중시

- 일·가정 양립은 고졸 이하가 66.9%, 전문대졸 68.5%, 4년제대졸 68.9%, 대학원졸이 73.7%로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시 여김.
- 승진은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가 57.9%로, 고졸 이하(53.6%), 전문대졸(51.1%), 4년제대졸 (53.2%)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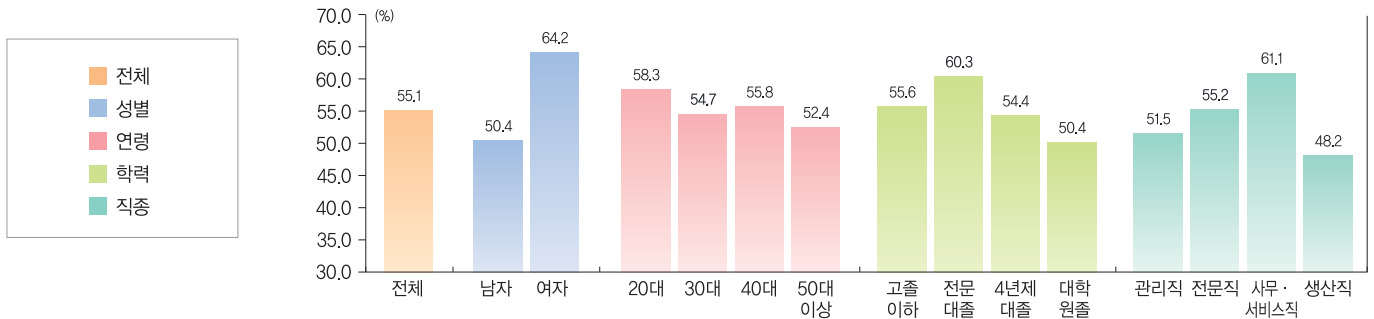
[그림 3] 학력별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 04 사회적 기여 및 스트레스에 대한 직장인 성공에 대한 인식

### | 적은 스트레스는 여자, 20대, 사무·서비스직에서 중시

- 성별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남자(50.4%)보다 여자(64.2%)가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직종별로는 사무·서비스직이 61.1%로 가장 높고, 생산직이 48.2%로 가장 낮음.  
-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이 많은 하위직이나 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연령대별로 스트레스는 20대가 58.3%로, 30대 54.7%, 40대 55.8%, 50대 이상 52.4%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 직장인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중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55.6%, 전문대졸 60.3%, 4년제대졸 54.4%, 대학원졸이 50.4%로, 대학원졸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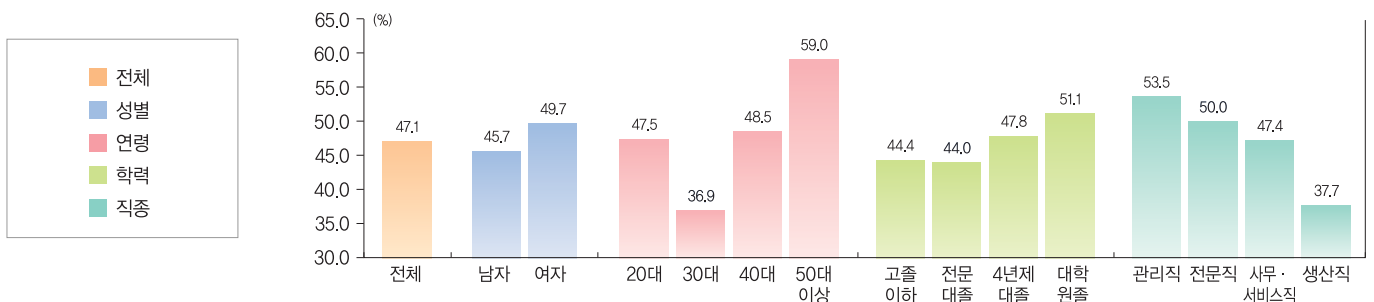
–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에는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조직 내·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그림 4] 인적속성별 적은 스트레스의 중요도 비율

### | 장년층은 사회적 기여를 중시

- 성별로는 남자가 45.7%, 여자가 49.7%로, 여자가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7.5%, 30대 36.9%, 40대 48.5%, 50대 이상이 59.0%로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50대 이상의 직장인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학력별로 고졸 44.4%, 전문대졸 44.0%, 4년제대졸 47.8%, 대학원졸 51.1%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인식함.
- 직종별로는 관리자 53.5%, 전문직 50.0%, 사무·서비스직 47.4%, 생산직 37.7%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관리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그림 5] 인적속성별 사회적 기여의 중요도 비율

## 05 시사점

- 직장인은 일·가정의 양립과 안정된 직장을 중요시하나 기업은 승진과 보상을 주요 인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양자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승진 및 보상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감정 노동이 많은 여성과 청년층, 사무·서비스직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조 희 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